

매일 미사 전례 독서

2014년 6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심 미사 예수 성심

제1독서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4,4ㄱㄴ-6.8-9

그 무렵 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 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⁵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⁶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⁸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⁹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뻗뻗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5(24).4-5ㄱㄴ.6과 7ㄴㄴ.8-9.10과 14(◎ 6ㄴ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끌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5-11

형제 여러분, ⁵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⁶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⁷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⁸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⁹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¹⁰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¹¹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5,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 알렐루야.

복 음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¹⁰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¹¹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¹²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¹³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¹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¹⁵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¹⁶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¹⁷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심 미사 주님의 어머니 성 마리아

제1독서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 역대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5,3-4.15-16; 16,1-2

그 무렵 ³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또한 ⁴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도 모이들었다. ¹⁵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¹⁶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16,1}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²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2(131),11.13-14.17-18(◎ 11ㄷㄹ)

- ◎ 나는 네가 낳은 아들을 너의 왕좌에 앉히리라.
- 주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으실 약속이로다. “나는 네가 낳은 아들을 너의 왕좌에 앉히리라.”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쉴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
- 거기서 다윗 집안에 뿔이 돋게 하고, 나의 메시아에게 등불을 들려 주리라. 그의 원수들은 수치의 옷을 입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왕관이 빛나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성모님, 온 세상도 담을 수 없는 분이 당신 태중에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9-47

³⁹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⁴⁰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⁴¹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⁴²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드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⁴³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⁴⁴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⁴⁵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⁴⁶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⁴⁷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뿡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일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제1독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11

¹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²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³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⁵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⁶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⁷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⁸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⁹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¹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¹¹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7(46), 2-3. 6-7. 8-9(◎ 6)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17-23

형제 여러분, ¹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¹⁸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¹⁹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²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²¹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²²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²³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8,16-20

그때에 ¹⁶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¹⁷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¹⁸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일 부활 제7주간 월요일

제1독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9,1-8

¹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²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³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⁴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⁵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⁶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⁷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⁸ 바오로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8(67),2-3,4와 5ㄱㄴ,6-7ㄱㄴ(◎ 33ㄱㄴ)

- ◎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일어나시니 그분의 적들은 흩어지고, 원수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네. 연기가 흠날리듯 그들은 흩어지고, 불길에 밀초가 녹아내리듯, 악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사라져 가네. ◎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복음 환호송

콜로 3,1

- ◎ 알렐루야.
-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 ◎ 알렐루야.

복 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29-33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²⁹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³⁰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³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³²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³³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3일 화요일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제1독서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를 다 마칩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0,17-27

그 무렵 ¹⁷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¹⁸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¹⁹ 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²⁰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가르쳤습니다. ²¹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²²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²³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일러 주셨습니다. ²⁴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²⁵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²⁶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서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²⁷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8(67),10-11.20-21(◎ 33ㄱㄴ)

- ◎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
- 주님은 날마다 찬미받으소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다. 우리 하느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주 하느님께 있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4,16 참조

- ◎ 알렐루야.
-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11ㄴ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¹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²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³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⁴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⁵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⁶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⁷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⁸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⁹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¹⁰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¹¹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4일

부활 제7주간 수요일

제1독서 〈나는 하느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시고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0, 28-38

그 무렵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²⁸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²⁹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 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³⁰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

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³¹ 그러니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³²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³³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³⁴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³⁵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³⁶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³⁷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³⁸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8(67), 29-30, 33-35ㄱ, 35ㄴㄷ과 36ㄷ(◎ 33ㄱㄴ)

- ◎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 당신의 권능을 베푸소서. 하느님,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소서, 우리 위하여 이루신 그 권능을. 예루살렘의 당신 성전을 위하여, 임금들이 당신께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
-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늘로, 태초의 하늘로 오르신다. 보라, 그분이 목소리 높이시니 그 소리 우렁차네. 하느님께 권능을 드러라. ◎
- 그분의 존엄은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권능은 구름 위에 있네.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17, 1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 11ㄷ-19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1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12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13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 16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17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19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5일 목요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제1독서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2,30; 23,6-11

그 무렵 30 천인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오로를 고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오로를 풀어 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23,6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 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8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9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¹⁰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¹¹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6(15),1-2ㄱ과 5.7-8.9-10.11(◎ 1)

-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7,2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20-26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²⁰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

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²¹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²²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³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²⁴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⁵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²⁶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6일

부활 제7주간 금요일

제1독서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5,13-21

그 무렵 ¹³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¹⁴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¹⁵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대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¹⁶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¹⁷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¹⁸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¹⁹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²⁰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²¹ 바오로는 그대로 간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3(102),1-2,11-12,19와 20ㄱㄴㄷ(◎ 19ㄱ)

- ◎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당신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 말씀을 따르는 힘센 용사들아. ◎

복음 환호송

요한 14,26

- ◎ 알렐루야.
-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5-19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¹⁵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17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9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7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

제1독서 〈바오로는 로마에서 지내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8,16-20,30-31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7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래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18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19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20 그래서 여러분을 뵈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30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이 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31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10),4.5와 7(◎ 7ㄴ 참조)

- ◎ 주님, 올곧은 이는 당신 얼굴 뵈오리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주님의 옥좌에서, 당신 눈으로 살피시고, 당신 눈동자로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
- 주님은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 그분의 일은 폭행을 즐기는 자를 미워하신다. 의로우신 주님은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 얼굴 뵈오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6,7.1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이 제자가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20-25

그때에 ²⁰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²¹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²²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²³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 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²⁴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²⁵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알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 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6월 7일 토요일 전야 미사

〈토요일 저녁, 성령 강림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전후에 이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곳을 바벨이라 하였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1,1-9

〈또는 탈출 19,3-8ㄱ.16-20나 또는 예제 37,1-14 또는 요엘 3,1나-5〉

¹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²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아르 지방에서 한 별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³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 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⁵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⁶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겨례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⁷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⁸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⁹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4(103),1-2ㄱ.24와 35ㄷ.27-28.29나ㄷ-30(◎ 30 참조)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 ◎
-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 바라나이다. 제때에 먹이를 달라 청하나이다. 당신이 주시면 그들은 모아들이고, 당신 손을 펼치시면 복이 넘치나이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제2독서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22-27

형제 여러분, ²²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²³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²⁴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²⁵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²⁶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²⁷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23면 참조>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7-39

³⁷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³⁸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³⁹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8일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제1독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11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¹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²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³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⁵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⁶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⁷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⁸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⁹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¹⁰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¹¹ 유대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4(103), 1ㄱ-ㄷ과 24ㄱ-ㄷ, 29ㄴ-ㄷ-30, 31과 34(◎ 30 참조)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 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3ㄷ-7.12-13

형제 여러분, ³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⁵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⁶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⁷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¹²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¹³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¹⁹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²¹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²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9일 연중 제10주간 월요일

제1독서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7,1-6

그 무렵 ¹ 길앗의 티스베에 사는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 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²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³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에서 숨어 지내라. ⁴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⁵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로 가서 머물렀다. ⁶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 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 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1(120),1-2,3-4,5-6,7-8(◎ 2 참조)

-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
-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

복음 환호송

마태 5,12

-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알렐루야.

복 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2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²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 ³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⁴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⁵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⁶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 ⁷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⁸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 ⁹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 ¹⁰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¹¹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¹²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0일

연중 제10주간 화요일

제1독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7,7-16

그 무렵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⁷ 시내의 물이 말라 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⁸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⁹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 놓았다.” ¹⁰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뿔감을 줌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¹¹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¹²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뿔감을 두어 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¹³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¹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¹⁵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¹⁶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2-3,4-5,7ㄷ-8(◎ 7ㄷ)

-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으려느냐?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속으로 새기며 침묵하여라. ◎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들에게 곡식과 햇포도주가 푸짐할 때보다, 당신은 더 큰 기쁨을 제 마음에 베푸셨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5,16 참조

- ◎ 알렐루야.

○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3-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³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¹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¹⁵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¹⁶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1일 수요일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제1독서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21ㄴ-26; 13,1-3

그 무렵 ²¹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²²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²³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했다. ²⁴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²⁵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²⁶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일 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3,1}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라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²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³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8(97), 1.2-3ㄱㄴ, 3ㄷㄹ-4.5-6(◎ 2 참조)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 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복음 환호송

마태 28, 19.2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 7-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⁷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⁸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⁹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¹⁰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¹¹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¹²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¹³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2일

연중 제10주간 목요일

제1독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렸다(야고 5,18).>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8,41-46

그 무렵 ⁴¹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⁴² 아합이 음식을 들려고 올라가자, 엘리야도 카르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으로 몸을 수그리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⁴³ 엘리야는 자기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하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살펴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일곱 번을 그렇게 다녀오라고 일렀다.

⁴⁴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에 시종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아합에게 올라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어 내려가십시오.’ 하고 전하여라.”

⁴⁵ 그러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즈르엘로 갔다. ⁴⁶ 한편 엘리야는 주님의 손이 자기에게 내리자,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르엘 어귀까지 뛰어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5(64),10ㄱ-12ㄷ,10ㄱ-11.12-13(◎ 2ㄱ-)

- ◎ 하느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함이 마땅하옵니다.
- 당신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20-2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0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25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26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3일 금요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제1독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9-11-16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9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11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

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¹³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겹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¹⁴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¹⁵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¹⁶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7(26), 7-8ㄱ, 8ㄴ-9. 13-14(◎ 8ㄴ 참조)

- ◎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
-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복음 환호송

필리 2, 15. 16 참조

-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 알렐루야.

복 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간음한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 27-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⁷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²⁸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²⁹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³⁰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³¹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³²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4일

연중 제10주간 토요일

제1독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섰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19-21

그 무렵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와 ¹⁹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열두 번째 겨릿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겹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²⁰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²¹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6(15),1-2ㄱ과 5.7-8.9-10(◎ 5ㄱ 참조)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어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시편 119(118),36.29 참조

- ◎ 알렐루야.
- 주 하느님,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3-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³³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러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³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³⁵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³⁶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회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³⁷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5일 주일 삼위일체 대축일

제1독서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4,4ㄱ-6.8-9

그 무렵 ⁴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 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⁵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⁶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⁸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⁹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뻗뻗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다니 3,52.53.54.55.56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13,11-13

¹¹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¹²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¹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18

¹⁶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¹⁷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¹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6일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제1독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21,1-16

그때에 ¹ 이즈르엘 사람 나봇이 이즈르엘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 곁에 있었다.

²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셈하여 줄 수도 있네.”

³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임금님께 넘겨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⁴ 아합은 이즈르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제 조상님들의 상속 재산을 넘겨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한 말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⁵ 그의 아내 이제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시어 음식조차 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⁶ 임금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실은 내가 이즈르엘 사람 나봇에게 ‘그대의 포도

밭을 돈을 받고 주게. 원한다면 그 포도밭 대신 다른 포도밭을 줄 수도 있네.’ 하였소. 그런데 그자가 ‘저는 포도밭을 임금님께 넘겨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요.”

⁷ 그러자 그의 아내 이제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에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제가 이즈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 드리겠습니다.”

⁸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장으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⁹ 이제벨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시오. ¹⁰ 그런 다음, 불량배 두 사람을 그 맞은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느님과 임금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시오.”

¹¹ 그 성읍 사람들, 곧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제벨이 보낸 전갈 그대로, 그 여자가 편지에 써 보낸 그대로 하였다.

¹² 그들이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자, ¹³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맞은쪽에 앉았다.

불량배들은 나봇을 두고 백성에게, “나봇은 하느님과 임금을 저주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인 다음, ¹⁴ 이제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¹⁵ 이제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즈르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넘겨주기를 거절하던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 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¹⁶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 이즈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2-3.5-6ㄱ.6ㄷ-7(◎ 2ㄴ)

- ◎ 주님, 제 탄식을 들어 주소서.
- 주님, 제 말쑥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탄식을 들어 주소서.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제 외침 소리 귀여겨들으소서.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
-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악인은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앞에 나서지 못하나이다. ◎
- 당신은 나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없애시나이다.

피에 주린 자와 사기 치는 자를 주님은 역겨워하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시편 119(118),10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을 밝히는 빛이옵니다.
-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8-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³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³⁹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⁴⁰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⁴¹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⁴²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7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제1독서 <너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21,17-29

나봇이 죽은 뒤에, ¹⁷ 주님의 말씀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¹⁸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¹⁹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그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핏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핏을 것이다.’”

²⁰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²¹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네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 버리겠다. ²²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

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돋우고 이스라엘을 죄 짓게 하였다.’

²³ 주님께서는 이제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즈르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²⁴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 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²⁵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²⁶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들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²⁷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자루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²⁸ 그때에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²⁹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1(50),3-4,5-6ㄱ,11과 16(◎ 3ㄱ 참조)

-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없애 주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43-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3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46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47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8일

연중 제11주간 수요일

제1독서 〈갑자기 불 병거가 나타나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1.6-14

1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였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떠나 건다가 예리코에 도착하자, 6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 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7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쉰 명이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이 요르단 강 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멀찍이 떨어져 멈추어 섰다.

8 엘리야가 겹옷을 들어 말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쪽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마른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9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 주십시오.”¹⁰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¹¹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 병거와 불 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¹²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¹³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겂옷을 집어 들고 되돌아와 요르단 강 가에 섰다. ¹⁴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겂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을 건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1(30), 20.21.24(◎ 25 참조)

- ◎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선을 베푸시나이다. ◎
-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시고, 당신 거처 안에 숨기시어, 사나운 구설에서 구하시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모든 이들아,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은 진실한 이들은 지켜 주시나, 거만한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6.16-1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¹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²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³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⁴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⁵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⁶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¹⁶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¹⁷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¹⁸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19일

연중 제11주간 목요일

제1독서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48,1-14

¹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²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³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 버리고, 세 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⁴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⁵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 냈습니다. ⁶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⁷ 당신은 시나이 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렙 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다. ⁸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⁹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 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¹⁰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아굽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¹¹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¹²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¹³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주검은 예언을 하였다.

¹⁴ 살아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7(96),1-2,3-4,5-6,7(◎ 12ㄱ)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 주님은 임금이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 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
- 불길이 그분을 앞서 가며, 돌레의 적들을 사르는구나. 그분의 번개 누리를 비추니, 땅이 보고 무서워 떠는구나. ◎
-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리러보네. ◎
- 우상을 섬기는 자들, 헛것으로 으쓱대는 자들 모두 부끄러워하리라. 모든 신들이 그분께 경배드리네. ◎

복음 환호송

로마 8,15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 알렐루야.

복 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7-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⁷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⁸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⁹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¹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¹¹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¹²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¹³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¹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¹⁵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0일

연중 제11주간 금요일

제1독서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11,1-4,9-18,20

그 무렵 아하즈야 임금의 ¹ 어머니 아탈야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² 그러자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즈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즈야의 아들 요아스를 아탈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두었으므로,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³ 아탈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여섯 해 동안,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주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⁴ 칠 년째 되던 해에 여호아다가 사람을 보내어 카리 사람 백인대장들과 호위병 백인대장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있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주님의 집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를 보여 주었다.

⁹ 백인대장들은 여호아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리고 여호아다 사제에게 갔다. ¹⁰ 사제는 주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대장들에게 내주었다. ¹¹ 호위병들은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서서 임금을 에워쌌다. ¹² 그때에 여호아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¹³ 아탈야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

서 ¹⁴ 보니, 임금이 관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아탈야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¹⁵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 두었던 것이다. ¹⁶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탈야가 왕궁의 ‘말 문’으로 난 길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¹⁷ 여호야다는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였다. ¹⁸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감독을 세웠다. ²⁰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야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2(131), 11.12.13-14.17-18(◎ 13)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 주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으실 약속이로다. “나는 네가 낳은 아들을 너의 왕좌에 앉히리라.” ◎
- 너의 아들들이 내 계약을, 내가 가르치는 법을 지킨다면, 그들의 아들들도 길이길이 너의 왕좌에 앉으리라.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쉴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
- 거기서 다윗 집안에 뿔이 돋게 하고, 나의 메시아에게 등불을 들려 주리라. 그의 원수들은 수치의 옷을 입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왕관이 빛나리라. ◎

복음 환호송

마태 5,3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9-2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9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20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

제1독서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마태 23,35 참조).>

▣ 역대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4,17-25

17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18 그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19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0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21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22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르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르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해가 끝나 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24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주 저희 조상들

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²⁵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에서 살해하였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9(88), 4-5. 29-30. 31-32. 33-34 (◎ 29ㄱ)

- ◎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라.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그의 후손들을 길이길이, 그의 왕좌를 하늘의 날수만큼 이어 주리라. ◎
- 그 자손들이 내 가르침 저버리고, 내 법규를 따라 걷지 않는다면, 내 규범을 더럽히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벌하리라. ◎
- 나는 그들의 죄악을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매로 벌하리라. 그러나 내 자애도 거두지 않고, 내 진실도 깨뜨리지 않으리라. ◎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 24-3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 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
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²⁹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³⁰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
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³¹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³²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
다. ³³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결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
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2일 주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 주셨다.〉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8,2-3.14ㄴ-16ㄱ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² “너희는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³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¹⁴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¹⁵ 그분은 불 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¹⁶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 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ㄱㄴ(◎ 12ㄱ)

-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2독서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0,16-17

형제 여러분, ¹⁶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떤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¹⁷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성체 송가: 21절부터 시작하여 짧게 할 수도 있다.>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취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뉘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19. 나뉘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⁵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⁵²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⁵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⁵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⁵⁵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⁵⁶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⁵⁷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⁵⁸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2일 주일

남북통일 기원 미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제1독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30,1-5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¹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²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³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또 너희를 가없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흠어 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⁴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너

회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⁵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예레 31,10.11-12ㄱ나.13ㄷ르-14(◎ 10ㄷ 참조)

-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흠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아굽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 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
-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 ◎

제2독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Ⅳ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29—5,2

형제 여러분, ²⁹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³⁰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³¹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³²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5,1}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²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 19ㄴ-2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9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3일

연중 제12주간 월요일

제1독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17, 5-8. 13-15ㄱ. 18

그 무렵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는 5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와 그곳을 세 해 동안 포위하였다. 6 마침내 호세아 제구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잔 강 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7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8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 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13 주님께서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14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뺏뺏하게 하였다. 15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18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0(59), 3.4-5.12-14(◎ 7ㄱ 참조)

- ◎ 주님, 당신 오른팔로 도우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 하느님, 당신은 저희를 버리고 부수셨나이다. 분노를 터뜨리셨나이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소서. ◎
- 당신이 땅을 뒤흔들어 갈라놓으셨나이다. 흔들리나이다, 그 갈라진 틈새를 메워 주소서. 당신 백성에게 모진 시련을 겪게 하시고, 술을 먹여 어지럽게 하셨나이다. ◎
- 하느님, 당신이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까? 하느님, 당신은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정하지 않으시나이다. 저희를 적에게서 구원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옵니다.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일을 이루리라. 그분이 우리 원수를 짓밟으시리라. ◎

복음 환호송

히브 4,12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 알렐루야.

복 음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2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3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5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6월 23일 월요일 전야 미사

〈6월 23일 저녁,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전후에 이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1,4-10

요시아 시대에 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⁵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⁶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⁷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 ⁸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⁹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 준다. ¹⁰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71(70), 1-2, 3-4ㄱㄷ, 5-6ㄱㄷ, 15ㄴㄷ과 17(◎ 6ㄴ)

- ◎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제2독서 <구원에 관해서는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1,8-12

사랑하는 여러분, 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⁹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⁰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¹¹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닮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¹²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1,17; 요한 1,7 참조

◎ 알렐루야.

○ 백성이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 알렐루야.

복 음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7

⁵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⁶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⁷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⁸ 즈카르야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⁹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¹⁰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¹¹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¹² 즈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¹³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

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¹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¹⁵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¹⁶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¹⁷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4일 화요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제1독서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1-6

¹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 주셨다. ²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 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 통 속에 감추셨다. ³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⁴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 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⁵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⁶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9(138),1-3.13-14ㄱ-14ㄴ-15(◎ 14ㄱ)

◎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앓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
-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
-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뱃속까지 당신께 드리났나이다. ◎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22-26

그 무렵 바오로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조상들에게 ²²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²³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²⁴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²⁵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다 합당하지 않다.’

²⁶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1,76

- ◎ 알렐루야.
-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7-66.80

⁵⁷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⁵⁸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

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59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61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62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랴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63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64 그때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65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66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80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5일

연중 제12주간 수요일

제1독서 〈임금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 책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 주고,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2,8-13; 23,1-3

그 무렵 8 힐키야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고 나서, 9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 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10 그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힐키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서 소리 내어 읽었다. 11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12 임금은 힐키야 사제, 사판의 아들 아히캄, 미카야의 아들 악보르,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인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13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23,1}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²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사제들과 예언자들,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 책의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³ 그런 다음에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33.34.35.36.37.40(◎ 33ㄱ)

-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
-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이 길을 좋아하나이다. ◎
- 탐욕이 아니라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
- 헛된 것을 보지 않게 제 눈을 돌려 주시고, 당신 길을 걷게 하시어 저를 살려 주소서. ◎
- 보소서, 당신 규정을 애타게 그리오니,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 주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15,4.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⁵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게걸 든 이리들이다. ¹⁶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덩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¹⁷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¹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¹⁹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²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5일 수요일 남북통일 기원 미사

〈6월 22일 주일에 ‘남북통일 기원 미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는
 오늘 기원 미사를 드릴 수 있다(50면 참조).〉

6월 26일 연중 제12주간 목요일

제1독서 〈바빌론 임금인 여호아킨과 건강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4,8-17

⁸ 여호아킨은 열여덟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타인데 예루살렘 출신 엘나탄의 딸이었다. ⁹ 여호아킨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¹⁰ 그때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다. ¹¹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도성에 이르렀다. ¹² 그러자 유다 임금 여호아킨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바빌론 임금은 그의 통치 제팔년에 여호아킨을 사로잡았다.

¹³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부카드네자르는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가고,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금 기물들을 모조리 떼어 냈다. ¹⁴ 또한 온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대신과 모든 용사 등 포로 일만 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끌고 갔다. 그리하여 나라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¹⁵ 네부카드네자르는 여호아킨을 모후와 왕비들,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것이다. ¹⁶ 바빌론 임금은 또 훌륭한 사람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강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17 그런 다음에 바빌론 임금은 여호아킨의 삼촌인 마탄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야로 바꾸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79(78), 1-2.3-5.8.9(◎ 9ㄴㄹ 참조)

- ◎ 주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 유산의 땅에 쳐들어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나이다. 당신 종들의 주검을 하늘의 새들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살을 땅 위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내주었나이다. ◎
- 그들의 피를 물처럼, 예루살렘 둘레에 쏟아부었건만, 묻어 줄 이 아무도 없나이다. 저희는 이웃에 우썃거리가 되고, 주위에 비웃음과 놀림감이 되었나이다. 주님, 언제까지 마냥 진노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걱정을 불태우시렵니까? ◎
- 선조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서 빨리 당신 자비를 저희에게 내리소서. 저희는 너무나 불쌍하게 되었나이다. ◎
-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를 구하소서. 당신 이름 위하여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21-2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23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²⁵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²⁶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
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²⁷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
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²⁸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²⁹ 그
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7일 금요일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제1독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를 선택하셨다.〉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7,6-11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⁶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
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⁷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
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 ⁸ 그
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
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셔서, 종살이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
를 구해 내셨다.

⁹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참하느님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
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¹⁰ 또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망시키시어 직접 갚으신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직접 갚으신다.

¹¹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
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3(102),1-2.3-4.6-7.8과 10(◎ 17)

◎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리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령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제2독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4,7-16

⁷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⁹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¹⁰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¹¹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¹²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¹³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¹⁴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¹⁵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¹⁶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1,29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5-30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제1독서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9-11

내 백성의 9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그들의 자손은 겨레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 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 11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1사무 2,1.4-5.6-7.8ㄱㄴㄷㄹ(◎ 1ㄱ 참조)

◎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 뛰고,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에, 제 입은 원수들을 비웃나이다. ◎
- 힘센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차게 일어선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더는 굶주리지 않는다. 아 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 간다. ◎
-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저승으로 내리기도 저승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
- 주님은 비천한 이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이를 잣더미에서 들어 높이시어,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

복음 환호송

루카 2,19 참조

- ◎ 알렐루야.
-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51

⁴¹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⁴²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⁴³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⁴⁴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⁴⁵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⁴⁶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⁴⁷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⁴⁸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⁴⁹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⁵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⁵¹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6월 28일 토요일 전야 미사

〈6월 28일 저녁,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전후에 이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3,1-10

그 무렵 ¹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세 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²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 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어다 놓았던 것이다. ³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⁵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⁶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 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⁷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⁸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경충경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⁹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¹⁰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9(18),2-3.4-5ㄱㄴ(◎ 5ㄱ)

- ◎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네.
-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숨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앓을 전하네. ◎
-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 나가네. ◎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1,11-20

11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 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12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13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14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15 그러나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16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17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18 그러고 나서 삼 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19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20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21,1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5-19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15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16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17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9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29일 주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교황 주일)

제1독서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헤로데의 손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2,1-11

그 무렵 1 헤로데 임금의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2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3 유대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4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짝 네 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5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6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7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8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

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⁹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재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¹⁰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¹¹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4(33), 2-3, 4-5, 6-7, 8-9(◎ 5나 참조)

-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제2독서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Ⅳ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4, 6-8, 17-18

사랑하는 그대여, ⁶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⁷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⁸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¹⁷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군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18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6,18 참조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19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월요일

제1독서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흠먼지 속에다 짓밟았다.>

▣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6-10.13-16

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빛돈을 빌미로 무죄한 이를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7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8 제단마다 그 옆에 저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드러눕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 댄다.

9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없애 주었다. 그 아모리인들은 항백 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 주었다. 10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13 이제 나는 곡식 단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14 날랜 자도 달아날 길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15 활을 든 자도 버틸 수 없고, 발 빠른 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며, 말 탄 자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16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 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0(49), 16ㄴ-17, 18-19, 20-21, 22-23(◎ 22ㄱ)

- ◎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뺄까치지 않느냐? ◎
- 너는 도둑을 보면 함께 어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다. 너의 입은 악행을 저지르고, 너의 혀는 간계를 꾸며 낸다. ◎
- 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헐뜯고, 네 친형제에게 모욕을 준다. 네가 이런 짓들 저질러도 잠자코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 나는 너를 벌하리라. 너의 행실 네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
-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내가 잡아 찢어도 구해 줄 자 없으리라.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는 나를 공경하리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환호송

시편 95(94), 7, 8

- ◎ 알렐루야.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알렐루야.

복 음 〈나를 따라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8-22

그때에 ¹⁸ 예수님께서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¹⁹ 그때에 한 율법 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 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²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²¹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²²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 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